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16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50)

국성제 지냈던 존자암 복원 한창

입력 : 2004. 10.08. 00:00:00



▲국성제 지냈던 존자암 복원 한창 불래오름 불래오름 존자암 복원현장. 제주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한 최고(最古)의 사찰로서 옛모습으로의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강경민기자 qmkanq@hallailbo.co.kr

불래오름

10월로 접어들면서 한라산에는 찬기운이 엄습했다. 탐사팀이 불래오름(佛來岳)을 찾은 10월 2일 한라산은 어느새 겨울이 찾아든 느낌이다.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한다.

복원이 한창 진행중인 존자암지(尊者庵址)로 향했다. 존자암지는 불래오름의 남사면 기슭에 자리잡았다. 한라산국립공원 영실매표소 주차장 한쪽에서 숲속으로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교목림과 무성한 조릿대밭을 약 30분 정도 걸으면 숲이 트인 산허리에 복원현장이 나타난다. 영실주차장에서 복원현장까지 복원용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모노레일이 개설돼 있다.

존자암 복원현장은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하원동 산1번지이며 해발 1200m에 위치, 제주도에서 가장 고지대에 있는 고찰(古刹)이었다. 불래오름 남서사면에서 발원한 계곡도 도순천의 주류 중 하나로, 남류하여 '큰내'인 도순천(하류에서는 강정천이라 불린다)으로 들어간다.

영실의 오백나한, 오백장군을 통틀어 기암괴석이 마치 여러 부처님들이 서로 마주보는 것 같고, 가야 천불봉(千佛峰·청음 김상헌)으로도 불렸는데, 이는 가까운 곳에 고찰 존자암이 있었기 때문인 듯 싶다.

존자암지는 지난 93년과 94년 두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발굴조사에서는 고려말인 14세기에서부터 조선중기 1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5곳과 불사리를 봉안했다고 하는 부도 등의 명문(名文)기와, 그리고 청동제 사천왕상 등이 출토되었다. 제주도는 95년 이 곳을 제주도 지정문화재 제43호로 지정했으며 발굴조사를 토대로 98년부터 대웅전과 법당 등 건물지 등을 복원중에 있다.

존자는 덕이 높고 큰 스님으로 '아라한'을 말한다. 부처님의 제자중에는 16아라한, 500아라한, 1,200아라한이 있었는데, 이 곳에 덕이 높고 큰 스님이 암자를 짓고 거주하였다고 하여 '존자암'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존자암에 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1486년)과 임제의 '남명소승'(1577년), 충암의 '제주풍토기'(1520년),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1601년), 이원진의 '탐라지'(1653년), 이형상의 '남환박물'(1702년) 등에 전해진다.

남사록에는 존자암이 국성제를 지냈던 곳으로도 기록하고 있다. 남사록에는 '4월에 점을 쳐서 좋은 날을 택하고 삼읍의 수령 중 한 사람을 보내어 목욕재계하고 이 암자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를 국성제라 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불교가 호국사상에 기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성제는 임진란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존자암의 위치와 창건연대, 그리고 과연 누구에 의해 건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다. 위치와 관련, 동국여지승람에는 한라산 서쪽 능선에 있다고 하였고, 남명소승에는 불래악 중턱에 있으며, 탐라지에는 '존자암이 처음에는 영실에 있었으나 지금은 산 서쪽 산록 10리 밖으로 옮겨 있는데, 대정현 지경이라고 하였다'고 적고 있다. 기록상 17세기 무렵에 현재의 위치에서 폐사됐다는 것이다.

기록상으로 볼 때 존자암의 창건연대는 고·양·부 삼성이 처음 시작될 때 건립돼 이어져 왔다고 하고 있으나 정확한 창건연대가 기록되지 않고 있다.

건립 주체와 관련, 석가모니 제자가 탐몰라주에서 불도를 전파했다는 기록에 비추어 제주가 불국정토의 발원지라는 학설이 바로 존자암지와 관련돼 있다. 고려대장경 범주기에 부처님의 16제자 중의 6번째인 발타라존자가 9백아라한(나한)을 거느리고 함께 나누어 살았다는 탐몰라주(耽沒羅洲)를 제주도에 비유하여 존자암이 발타라존자에 유래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학자들의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는 우리나라 불교 전파시기와 관련돼 있고 '탐몰라주'도 제주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어의 한역이며 추상적인 지역에 지나지 않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거대한 한라산체 속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존자암은 여전히 신비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고찰 존자암에 대한 진지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탐사단은 존자암지를 둘러본 뒤 서쪽능선을 거슬러 불래오름 정상으로 향했다. 능선에는 사람

이 왕래했던 등산로가 조릿대 숲에 감춰져 있다. 등산로는 정상에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빨강계 익은 산딸나무가 구미를 당긴다.

정상에 이르니 서귀포 앞바다에 떠 있는 세 개의 섬과 중문 컨벤션센터, 옹기종기 오름들이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불래오름 동사면 아래쪽 평지는 습지다. 축구경기장 크기로 어림잡아 5천평은 넘는다. 습지에는 나무와 버과식물이 많이 들어와 점차 육지화되고 있지만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어 이곳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노루들에게는 목을 축일 수 있는 소중한 곳이다.

불래오름의 굽부리는 1100도로 휴게소가 있는 탐라각방향으로 터져 있다. 이 굽부리는 이웃해 있는 이슬령오름에서 제대로 조망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리포트]불래오름(佛來岳)과 존자암(尊者庵)

불래오름은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영실기암(靈室奇岩) 서쪽에 자리잡은 오름으로 북서방향으로 개구(開口)된 말굽형 오름이다. 이 오름에는 두 개의 정상이 있는데, 북동쪽의 것은 해발 1367m이고 마주하는 남서쪽의 것은 1374m를 보인다.

불래오름의 남서쪽 정상에 서면 산방산, 월라봉, 군산, 삼매봉 등 해안가의 오름은 물론이고, 형제섬과 범섬, 중문해수욕장 및 서귀포항 등 사계해안에서 서귀포해안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파노라마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영실(휴게소)을 중간기점으로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넓고 푸른 숲은 단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열어젖혀 시원함의 극치를 맛보게 한다.

지명을 연구하는 도내의 한 연구자에 따르면, 여러 고지도(古地圖)에는 불래오름의 이름이 포애악(浦涯嶽), 불라악(虜羅岳), 존자악(尊者岳) 및 포라악(鋪羅岳) 등으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래악(佛來岳)으로 불려진다고 하였다. 이들 오름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불래오름에 대한 몇몇 이름은 불래오름의 남서사면(해발 약 1100m)에 자리잡고 있던 존자암(尊者庵)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찰이름이 오름이름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존자암이라는 사찰은 지극히 오래 전에 건립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진실여부를 떠나, 당시 존자암의 지위나 위세도 상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일설에 의하면, 존자암은 석가모니의 여섯 번째 제자(第六尊者)인 발타라(跋陀羅)와 구백나한(九百羅漢)이 거주했던 암자로서 남방불교의 전래지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1996년에 걸쳐 제주대학교박물관이 발굴해낸 자료에 따르면, 존자암은 고려시대 말~조선시대 초에 세워진 암자(庵子)로서 고승(高僧)들이 기거하며 수도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 차례에 걸쳐 발굴한 결과 존자암과 관련되는 건물지, 부도(浮屠), 탑지 추정지, 적석(積石)시설과 명문(銘文) 기와편, 명문 백자편 및 청자편 등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부도는 팔각대석과 사리공(舍利孔) 등 독특한 형태의 양식을 보이는 것으로서 제주도 내에서도 유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이 부도는 오래 전에 제주도로 불교가 전래됐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불래오름은 남서사면에 입지 하는 존자암의 존재로 인해 더욱 더 신비에 휩싸인 오름으로 여겨지고 있다. 영실 코스로 등산하는 사람들은 한번쯤 불래오름 능선에 자리잡은 존자암(지)을 방문하여 오랜 역사의 향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 문 가 리 포 트 불래오름(佛來岳)과 존자암(尊者庵)

<정광중 탐사위원(제주교대교수/인문지리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